

『金匱要略』의 重要 註釋書에 대한 研究

廉龍河·河基泰·玄東煥·尹相柱·金俊錫·崔達永*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초록】『金匱要略』은 韓醫學 最古의 雜病專門書로서 그 重要性이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註解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著者는 앞으로의 研究와 教育의 基本資料로 삼기 위하여 本書의 重要 註釋書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金匱要略』에 대한 최초의 註釋은 元明間 趙良仁의 『金匱要略衍義』이며, 그 이후 清代에는 『金匱玉函經二註』, 『金匱要略論注』, 『金匱要略直解』, 『金匱要略方論本義』, 『金匱要略心典』, 『訂正金匱要略注』 등이 유명하다. 日本에서는 『金匱要略註解』을 효시로 『金匱要略方論襯注』, 『長沙正經證匯』, 『金匱要略集成』, 『金匱要略輯義』, 『金匱玉函要略述義』 등의 注本이 있다.

중심낱말 : 金匱要略, 註解書

I. 序 論

『金匱要略』은 漢末 張仲景의 저술로 現存하는 最古의 雜病의 專門書籍으로서 醫方의 鼻祖로 일컬어지며 『內經』, 『本草經』, 『傷寒論』 등과 함께 한의학 最古의 고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中國에서는 宋代 이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1988년에 출간된 『金匱要略手冊』에서는

207종의 관련서적이 수록되어 있다¹⁾. 또한 中國에서는 『金匱要略』을 하나의 독립된 學科目으로 채택하여 中醫學 教育에 활용하고 있으며²⁾ 『傷寒論』, 『溫病學』과 더불어 臨床醫學의 基礎로서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다.³⁾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金匱要略』에 대한 본격적인 註解書가 아직 없으며 『金匱要略』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⁴⁾. 따라서 著者는 本書에 대한

* 교신저자 : 최달영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우 : 780-714)

054-770-2650 Email : cdydkom@dongguk.ac.kr

- 1) 段光周 外編 : 金匱要略手冊, 仲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8, p.403
- 2) 湖北中醫學院 編 : 金匱要略講義, 香港, 醫藥衛生出版社, 1977.
- 3) 林培政, 劉立敏 : 關於中醫臨床基礎學科發展的思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5(8) : 16-17, 1999.
- 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金匱要略』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논문은 없으며, 단지 일부 편이나 주제에 대한 논문이 몇편 보일 뿐이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을 통하여 검색한 『金匱要略』 관련 문헌들이다.
김용태, 김성훈 : 『金匱要略·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篇에 對한 研究,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 13 : 445-463, 1998.
이호재, 김성훈 : 『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證治』篇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3 : 543-560, 1998.
이동훈, 김성훈 : 『金匱要略·胸痺心痛短氣脈證并治』篇에 對한 研究,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3 : 517-532, 1998.

중요 注釋書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金匱研究와 教育의 基本資料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하였다.

II. 本論

1. 中國의 『金匱要略』 註釋書

『金匱要略』의 注釋은 『傷寒論』의 注釋과 비교하여 수량에 있어서도 훨씬 적을 뿐 아니라, 『傷寒論』 注釋이 宋代부터 나타난 것에 비하여 『金匱要略』의 注釋은 明代부터 나타나고 있으므로 『金匱要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시기도 비교적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明代 이후 중요한 金匱 注釋書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明代의 註釋書

현재 『金匱要略』의 全注本으로 가장 빠른 것은 元明間 趙良仁의 『金匱方論衍義』 3卷인데⁵⁾, 原刊本은 이미 소실되었고 지금은 抄本이 中國科學院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⁶⁾. 또 지금

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復刊本이 있었다고 한다.⁷⁾ 또한 이 趙良仁의 注本을 기초로 1687년에 周揚俊이 자기의 注文을 보충하여 모두 22卷으로 만든 『金匱玉函經二注』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金匱方論衍義』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⁸⁾

著者인 趙以德(1315~?)은 본명이 良仁이고⁹⁾ 호는 雲居, 浙江省 浦江 출신으로 28세부터 義烏의 朱丹溪에게서 의학을 배웠다.¹⁰⁾ 53세에 元나라가 망하고 明이 건국되었으며, 사망년도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吳縣志』에 '以高壽終'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¹¹⁾ 1300년대 말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陳文述은 「重刊金匱二註序」에서 宋代의 인물로 보았으며¹²⁾, 陸心原是 『儀顧堂文集』에서 元代 사람이라고 하였고 『衍義』의 抄本에서는 明人の 제작이라 기록하고 있다.¹³⁾ 그러나 宋代로 보는 陳文述의 견해는 『金匱要略』의 最初 全注本의 연대를 『傷寒論』의 시대와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술된 의도적 조작으로 보인다. 저서로는 『金匱方論衍義』 이외에도 『醫學宗旨』, 『丹

구자권 : 『金匱要略·痞癰腸癰浸淫病脈證』篇의 治方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5 : 147-162, 1999. 신원웅 : 『金匱要略·消渴小便利淋病脈證并治』의 病因과 病理에 對한 小考, 대전대한의학연구소 논문집14 : 305-325, 1999.

구자권 :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篇의 治方에 對한 文獻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4 : 337-360, 1999.

홍문엽 外 : 『金匱要略』의 常見腹證에 關한 研究, 동국대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8(1) : 51-76, 1999.

박상채 : 『金匱要略』중 桔梗이 使用된 處方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5 : 163-176, 1999.

김인락 : 『金匱要略』溫經湯 표준화, 한국본초의학연구회지 2(2) : 120-126, 1999.

5) 이 책의 출판연대에 대해서 馬鷄興은 明初라고 하였고 『金匱玉函經二註』의 「校點說明」에서는 元明間이라 하였다. 또한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에서는 刊年未詳이라 하였으나 『金匱要略手冊』에서는 1368년으로 되어 있다. (馬鷄興 :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32; 趙以德·周揚俊 : 金匱玉函經二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3; 段光周 : 상계서, p.404;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p.27) 출판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책이 『金匱要略』에 대한 주석서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6) 段光周 : 상계서, p.404

7) 馬鷄興 : 상계서, p.132

8) 周揚俊 : 金匱玉函經二註

9) 『元史』「藝文志」와 「古今醫統」에는 趙良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p.276)

10)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p.276

11) 周揚俊 : 상계서, p.3

12) “宋趙君以德, …… 趙君不著里籍, 『金匱要略』又云明人, 君因欲去序中宋字, 余謂舊本不宜輕改, 且其文筆醇厚, 語多近儒, 非明人所及. (周揚俊 : 상계서, p.13-14)

13) 周揚俊 : 상계서, p.3

溪藥要或問』이 있었으나 모두 출판되지 못하고 일실되었다.¹⁴⁾ 『金匱方論衍義』는 후대의 史書誌나 日本의 丹波元簡이나 清代 黃虞稷 등의 藏書家の 圖書目錄에도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많이 流傳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⁵⁾ 周揚俊도 『二註』의 序文에서 “昔乎未有梓本, 讀者甚少; 更有遺編, 註述頗缺”¹⁶⁾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출판되지 못한 抄寫本으로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內經』과 『難經』의 이론으로 『金匱』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그 외에도 成無己, 朱丹溪, 劉河間, 張子和 등의 學說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⁷⁾ 후세에 『金匱要略』을 주석한 醫家들은 이 책을 많이 인용하였으며, 藏書家인 陸心原은 이 책을 성무기의 『註解傷寒論』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¹⁸⁾ 원 책은 林億 등의 교정본 25편 가운데 「雜療方」, 「禽獸魚蟲禁忌并治」, 「果實菜谷禁忌并治」의 마지막 3편을 제외한 全篇에 주석을 가하였다.¹⁹⁾

이 외에도 明代에 胡引年와 盧之頤 등의 注本이 있었다고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²⁰⁾ 胡引年の 註釋에 대해서는 『金匱要略直解』의 「凡例」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²¹⁾

2) 清代의 註釋書

清初以後 부터 비교적 많은 『金匱要略』 全注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清代에 나온 註釋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金匱玉函經二註』와 1671년 徐彬의 『金匱要略論注』, 1673년 程林의 『金匱要略直解』, 1720년 魏荔彤의 『金匱要略方論本義』, 1732년 尤怡의 『金匱要略心典』, 1742년 吳謙 등의 『訂正金匱要略注』 등이 유명하다.

(1) 『金匱要略論注』

清 康熙 10年(1671)에 徐彬(忠可)이 저술한 24권의 책²²⁾으로 현재 13종의 版本이 있으며²³⁾ 가장 대표적인 것은 康熙 10年(1671)의 初刊本으로 현재 北京圖書館, 中醫研究院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다.²⁴⁾ 徐彬은 清初의 著名한 醫學者로서 생몰년대는 未詳이나 康熙, 順治 시기의 樵李²⁵⁾人으로 明代 太僕 徐世淳의 三子로 少年期에는 國子監의 儒生이었으나, 후에 李中梓에게서 醫學을 공부하였으며 喻嘉言을 스승으로 모셨다.²⁶⁾ 따라서 이 책은 喻嘉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²⁷⁾ 序文에서도 “단지 喻昌 선생님이 지은 『醫門法律』 만이 立論이 『金匱』를 본받았다”²⁸⁾고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金匱』의 原文 아래에 註와 論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그는 “拙著有註有論. 正義註釋備於註. 或有剩義及總括諸證不可轉屬者, 見於論.

14) 周揚俊 : 상계서, p.3

15) 周揚俊 : 상계서, p.4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276

16) 周揚俊 : 상계서, p.16

17) 周揚俊 : 상계서, p.4

18) 원 출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것

19)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24

20) 馬鷄興 : 상계서, p.132

21) 각주 34번 참고.

22) 段光周 : 상계서, p.405

23) 徐忠可 : 金匱要略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399-400.

24) 徐忠可 : 상계서, p.399.

25) 현재의 浙江省 秀水縣의 西南方에 해당하며 1912년에 嘉興縣으로 併入되었다.

26) 徐忠可 : 상계서, p.379

27) 何任 主編 :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86.

28) 獨喻師作『醫門法律』, 立論多宗『金匱』, 固足以表章前人, 啓牖末學矣. (徐忠可 : 상계서, p.12)

更有經義，可借以發本文之覆者，別具上方。”²⁹⁾이라고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이 외에도 『傷寒論註』, 『原始』, 『傷寒論圖說』, 『註許氏傷寒百證歌』, 『傷寒一百一十三方發明』 등이 있다.³⁰⁾

(2) 『金匱要略直解』

모두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淸 康熙 12년(1673)에 程林이 저술한 책으로 현재 3종의 판본이 남아 있다.³¹⁾ 程林은 字가 雲來이고 休寧縣³²⁾ 출신으로 조부 程敬通 이래로 安徽省에서는 의학으로 유명한 世家 출신이다. 그의 저서로는 『聖濟總錄』을 刪定하여 번잡한 것과 神仙術 등의 내용을 제거한 『聖濟總錄提要』, 唐代 杜光庭의 『玉函經』(1647)의 校訂, 『卽效方』(1672), 『醫暇扈言』(1676) 등이 있다.³³⁾

『凡例』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는 주로 『內經』, 『神農本草經』, 『傷寒論』, 『脈經』, 『甲乙經』 등의 고서를 引證하고 六朝와 唐宋의 諸家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며³⁴⁾, 저술의 동기를 趙以德과 胡引年의 註가 모두 오류가 심하여 善本을 널리 구하여 闕文이나 의심되는 구절을 보충하였다고 하였다³⁵⁾. 또한 그는 林億 등이 첨부한 侯氏黑散 등 唐人의 여러 처방을 제거하고³⁶⁾, 九痛丸에 非仲景方이라고 명확히 표기하는 등³⁷⁾ 錯簡重訂의 입장에서 『金匱要略』을 정리하고 있다.

또 『雜療方』 이하의 3편에 대해서도 注釋을 가한 것이 특징인데³⁸⁾, 단지 내용이 자질구레하고 통일성이 없어서 다른 편과 달리 小字로 주석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³⁹⁾

(3) 『金匱玉函經二註』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元明間 趙良仁의 注本을 기초로 1687년에 周揚俊이 자기의 注文을 보충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 15종의 판본이 있으며 가장 상용되는 『金匱』 주석본 가운데 하나이다.⁴⁰⁾ 著者인 周揚俊(1621~?)은 江蘇省 吳縣 사람으로 字가 禹載, 호는 東園老人이며 初年에는 儒學을 공부하다가 누차 과거에 낙방한 이후 40세 정도부터 의학을 시작하여 10여년을 연구하여 辛亥年間(1671년)에 京師로 가서 王公 등을 많이 치료하여 이름을 날렸다. 주요 著書로는 『溫病暑疫全書』(1679년 出刊), 『傷寒論三註』(1683년 出刊), 『金匱玉函經二註』(1687년 出刊)이 있으며, 葛可久的 『十藥神書』에 주석을 가하였다⁴¹⁾.

그는 序文에서 당시 유행하던 徐忠可와 程雲來 등의 주석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⁴²⁾, 趙以德의 『衍義』를 “理明學博, 意周慮審, 本軒岐諸論, 相爲映照; 合體用應變, 互爲參酌, 庶幾大道之明也.”라고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⁴³⁾ 책의 편제는 趙良仁의 『衍義』를 기본으로 하고 저자가 필

29) 徐忠可 : 상계서, p.20

30) 徐忠可 : 상계서, p.379

31) 段光周 : 상계서, p.405

32) 현재의 安徽省 休寧

33)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

34) 引證諸書, 悉本靈·素·本草·脈·難·甲乙申藏及傷寒論, 其六朝唐宋諸名家, 有確論者亦附之. (程林 : 金匱要略直解·凡例, 上海, 中醫書局, 中華民國19年, p.1)

35) 是書明初有趙以德註, 嗣後有胡引年註, 方論訛舛甚多. 今廣求善本, 改正其闕文疑義者, 存之以待來學. (程林 : 金匱要略直解·凡例, p.1)

36) 宋林億校正, 附唐人諸方, 如侯氏黑散之類. 今皆刪去. (程林 : 金匱要略直解·凡例, p.2)

37) 程林 : 상계서·中卷, p.23

38) 程林 : 상계서·下卷, pp.71-120

39) 程林 : 상계서·下卷, p.71

40) 段光周 : 상계서, p.405

41)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281

42) 各有所註行世, 已足闡發底蘊, 表彰絕業; …… (周揚俊 : 상계서, p.15)

43) 周揚俊 : 상계서, p.15-16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補註를 취하는 형태
로 하였으며, 때때로 補註를 생략하기도 하였다.
이 補註에 대하여 그는 “余購之二十餘載, 未得
全璧, 因不揣疏陋, 擬爲補註, 又大半採嘉言之義,
融會成之”⁴⁵⁾라고 하여 喻嘉言의 학설에 많은 영
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中
醫古籍整理叢書의 하나로 周衡, 王旭東 등이 校
訂, 點注하여 人民衛生出版社에서 1990년에 출
판하였다.⁴⁶⁾

(4) 『張仲景金匱要略』

沈目南이 1692년(淸 康熙 31년)에 저술한 24
권의 책으로 『金匱要略編注』라고도 하며 현재 9
종의 판본이 존재한다.⁴⁷⁾ 沈目南은 字가 明宗이
고 徐忠可와 같은 樵李人⁴⁸⁾으로, 어릴 때 禪宗
을 배우고 겸하여 醫學을 배웠으며 張仲景의 학
술을 연구하여 『傷寒下經辨證治法』, 『張仲景金
匱要略』 등을 저술하였다.⁴⁹⁾

『凡例』에 의하면 『靈樞』, 『素問』, 『難經』, 『傷
寒』, 『金匱』를 醫門의 梁棟이라 하여 중요시
하였고 陶節庵의 『傷寒六書』와 『明醫指掌』을
존중하였다.⁵⁰⁾ 또한 그는 王叔和가 編集한 傷
寒과 雜病에 대한 글을 『金匱玉函經』이라고 하
였으며, 王叔和의 공적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그가 「序例」, 「汗吐下」 등을 마음대로 삽입하였

다고 비판하였다.⁵¹⁾ 따라서 그는 「重編大義」에
서 前人들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編次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순서에 맞게 章名을 붙
여 수미가 상관하도록 재편집하였음을 말하고
있다.⁵²⁾ 그리고 『金匱要略』에 대해서도 『靈樞』
와 『素問』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아 軒岐와 仲景
이 근원적으로는 같은 것임을 강조하였다.⁵³⁾

책의 구성은 孟端士의 「孟序」와 「凡例」가 卷頭
에 있으며⁵⁴⁾, 卷一에 沈目南이 쓴 「重編大義」와
『金匱要略』의 第一篇 「臟腑經絡先後病證治」에 해
당하는 條文을 「序例」, 「時令」, 「問陰陽病十八」,
「望色」, 「聞聲」, 「問治未病」, 「五臟病喜惡」, 「五臟
攻法」, 「誤治救逆」, 「切脈」, 「厥」, 「喘息」으로 분
류하여 注釋을 가하고 있으며⁵⁵⁾, 나머지 편도 기
본적인 체제는 동일하다. 단 『金匱要略』의 24편
과 25편은 「禽獸魚蟲果食菜谷禁忌」으로 묶였으
며, 이 편과 「雜療方」에 대해서는 주석을 가하지
않았다.⁵⁶⁾ 최근 北京의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中
國醫學大成的 第2冊 傷寒·金匱分冊에 포함되어
『沈注金匱要略』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5) 『金匱要略方論本義』

1720년 魏荔彤이 저술한 책으로 모두 22권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7종의 판본이 남아 있다.⁵⁷⁾
1997년 中醫古籍整理叢書의 일부로 人民衛生出版

44) 예를들어 「卷之一」에서 “問曰：上工治未病……”의 1-1조에는 衍義만 있고 補註는 없으며, 그다음 “夫人秉五
常, 因風氣而生長. ……”으로 시작하는 1-2조에는 衍義 뒤에 “此條수언원진통장, 인죽안화, 미언병칙무유입기
주리, 개중양기이고진음야.”라는 補註를 달고 있다. (周揚俊：상계서, p.1-6) 조문번호는 『金匱要略手冊』을 따
랐음.

45) 周揚俊：상계서, p.16

46) 周揚俊：상계서의 표지 및 서지사항 참고.

47) 段光周：상계서, p.405

48) 현재 浙江省 嘉興市 서남방.

49)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143

50) 沈目南：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第2冊)傷寒·金匱分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701, 1997.

51) 沈目南：상계서, p.701

52) 沈目南：상계서, pp.703,709

53) 沈目南：상계서, p.701

54) 沈目南：상계서, pp.700-701

55) 沈目南：상계서, pp.709-716

56) 以下二卷, 有方無論, 不敢妄釋, 留俟博學君子. (沈目南：상계서, pp.812-818)

57) 段光周：상계서, p.406

사에서 校點 출간하였으며⁵⁸⁾, 이 판본을 기초로 최근에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卒業準備委員會에서 번역 출간하였다.⁵⁹⁾ 魏荔彤은 直隸 柏鄉⁶⁰⁾ 사람으로 1670년에 相國 魏裔介의 막내로 태어났다. 13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생활을 하다가 1726년(雍正 4년)에 痿痺를 앓아 고향으로 돌아가 醫學과 著述에 전념하였다.⁶¹⁾ 그는 어린 시절부터 醫學에 관심을 가져 『內經』과 仲景之書를 읽었으며 甲午·乙未 년간에 『易』으로 점을 치다가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해독하게 되었다⁶²⁾고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의 다른 저작으로는 『素問通解』, 『靈樞經通解』, 『傷寒論本義』, 『大易通解』, 『四書通解』, 『懷訪集』 등이 있다.⁶³⁾

(6) 『金匱要略心典』

1729에 尤怡가 저술한 3권으로 된 책으로 현재 24종의 판본이 있지만 상견되는 것으로는 淸雍正 10년(1732년)의 初刊本, 淸 雍正年間의 刻本, 淸 同治 8년(1732년)의 雙白燕堂 陸氏의 刻本, 淸 光緒 7년(1881년)에 崇德書院 刊本과 『中國醫學大成』本 등의 5종이 유명하다.⁶⁴⁾ 尤怡는 字가 在涇, 號는 桐鶴山人이며 江蘇省 長州人으로 생년은 확실하지 않으나 1749년에 사망하였다.⁶⁵⁾ 젊었을 때 가난하여 절에서 글자를 파는 것으로 생업을 유지했으며, 후에 醫業에 종사하

여 많은 文人學士와 交分이 있었다.⁶⁶⁾ 『心典』 외에도 傷寒에 대한 注釋書인 『傷寒貫珠集』과 『金匱要略心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한 일종의 雜病書籍인 『金匱翼』을 저술하였으며, 일종의 讀書 備忘錄인 『醫學讀書記』와 後人들이 모은 그의 醫案集인 『靜香樓醫案』이 있다.⁶⁷⁾

이 책은 줄여서 『金匱心典』 혹은 『心典』으로도 불리며 注釋에 아주 깊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徐靈胎는 이 책에 대하여 “條理通達, 指歸明顯, 辭不必煩而意已盡, 語不必心而旨已傳.”⁶⁸⁾이라고 평가하였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에는 1729년에 간행된 것을 되어 있으나,⁶⁹⁾ 卷頭의 徐大椿의 「序」가 1732에 쓰여졌고 尤怡의 「自序」는 1729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雷風과 曉雪의 1732년 설⁷⁰⁾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上中下 3권에 「雜療方」 이하 3편을 제외한 22편에 대해서 「原文과 注釋을 수록하고 있으며, 주석의 내용이 精要하면서도 條理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¹⁾ 또한 自序에 수년 동안 仲景의 책들을 읽고 심득한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여 왔으나 주석을 하지는 못하다가, 丙午年(1726년) 가을에 병을 핑계로 서재에 살면서 세상 일을 다 물리치고 『金匱』의 舊本을 다시 해석하고 수정하는 작업에 매달렸다고 저작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⁷²⁾ 실제로 본문 가

58) 魏荔彤：金匱要略方論本義，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7.

59) 魏荔彤 撰，東國大學校韓醫科大學第15期卒業委 譯：金匱要略方論本義，서울，남형문화(自家出版)，2000.

60) 현재의 江북省 柏鄉縣에 해당.

61) 魏荔彤：상계서，p.647

62) 魏荔彤：상계서，傷寒論·金匱要略釋義自序.

63) 魏荔彤：상계서，p.647

64) 段光周：상계서，p.406

65) 尤怡：金匱翼，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6，p.1

66)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p.193

67)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p.193

68) 尤怡：金匱要略心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2，p.4

69)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p.26

70) 尤怡：상계서，內容提要.

71)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p.26

72) 余讀仲景書者數矣，心有所得，輒筆諸簡端，以爲他日考證學問之地，非敢舉以注是書也。……丙午秋日，抱病齋居，勉謝人事，因取『金匱』舊本，重加尋釋，其未經筆者補之，其記而未盡善者復改之，覃精研思，務求當於故人之心而後已。(尤怡：상계서，p.5)

운대는 “按⁷³⁾”, “再按⁷⁴⁾” 등 계속적인 수정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다.

(7) 『訂正金匱要略注』

清代的 醫學教科書인 『醫宗金鑑』 제 18권에 서 25권에 포함된 『訂正金匱要略注』 8권은 1742년 吳謙 등이 乾隆帝의 명에 의하여 저술한 것으로⁷⁵⁾, 著者인 吳謙은 字는 六吉이고 安徽省 歙縣 출신으로 乾隆年間に 벼슬이 太醫院 判에 이르렀으며, 劉裕鐸과 함께 『醫宗金鑑』을 主編하였다. 특히 『訂正傷寒論注』와 『訂正金匱要略注』는 그의 自編이다.⁷⁶⁾ 그는 일부 옛 注本에 역지의 설이있고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아 訂正하고, 諸家の 注釋을 종합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注釋을 가하였다.⁷⁷⁾ 또한 『醫宗金鑑』 제1권에서 17권에는 『傷寒論』의 주석서인 『訂正傷寒論注』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⁷⁸⁾ 清代的 발달한 仲景學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凡例」를 통하여 『傷寒論』과 『金匱要略』이 본래는 하나의 책인데, 林億 등이 교정하면서 둘로 나누었다가 趙開美에 의하여 다시 하나의 『仲景全書』로 합해졌다고 보았다.⁷⁹⁾ 또한 諸家の 舊本이 錯簡이나 衍文, 重複 등이 있어서 趙開美의 『仲景全書』를 기준으로 諸家の 설을 참고하여 교정하였으며, 책의 편집의도를 “不拘泥前人, 惟在啓發後學, 足裨實用”이라고 표현하

였다.⁸⁰⁾ 책의 내용은 먼저 『金匱要略』의 原文을 놓고 그 뒤에 [按]을 통하여 大意를 설명하거나 校勘을 가하였고, [注]에서 자신의 注釋을, [集註]에서 諸家の 주석 가운데 합리적인 것을 수록하였다.⁸¹⁾ 또한 이전에는 별로 注釋이 없었던 최후의 3篇에 대해서도 [按], [注], [方解] 등을 통하여 주석을 가하였다.⁸²⁾ 卷末에 따로 「正誤存疑」篇을 수록하여 94조문에 대한 訂正과 28조문에 대해 疑問을 제기하였다.⁸³⁾

(8) 기타

그 외의 清代 注本으로 유명한 것으로는 1682년 李炆이 지은 『金匱要略廣注』⁸⁴⁾, 1756년 黃元御 『金匱懸解』⁸⁵⁾, 1803년 陳念祖의 『金匱要略淺注』⁸⁶⁾, 1803년에 陳念祖가 集注한 것에 唐宗海가 다시 補正한 『金匱要略淺注補正』⁸⁷⁾ 등이 있다.

2. 日本에서의 『金匱要略』 註釋書

1) 『金匱要略註解』

1696년에 名古屋玄醫이 저술한 23권의 醫書로 日本에서 나온 『金匱要略』에 대한 최초의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中醫研究院과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⁸⁸⁾ 本書는 「臟腑經絡先後」부터 「雜療方」까지 23편을 주해하였고,

73) 尤怡 : 상계서, p.34

74) 尤怡 : 상계서, p.26

75) 段光周 : 상계서, p.406

76)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165

77)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270

78)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 p.270

79) 吳謙 : 訂正仲景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 1979.

80) 吳謙 : 訂正仲景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 1979.

81) 『金匱要略』 1-1조의 경우에는 [按], [注], [按], [集注]의 순으로 되어 있다. (吳謙 : 상계서, p.451-453)

82) 吳謙 : 상계서, p.663-696

83) 吳謙 : 상계서, p.697-721

84) 李炆 :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85) 黃元御 : 金匱懸解, in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86) 陳修園 : 金匱要略淺注,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8.

87) 唐容川 : 金匱要略淺注補正, in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361-528.

88) 段光周 : 상계서, p.420

食禁 2篇은 빠져 있다⁸⁹⁾. 또한 「臟腑經絡先後」 앞에 「桂枝湯麻黃湯說」 1편이 추가되어 있으며⁹⁰⁾, 卷頭에 元祿 丙子년의 奧三璞의 서문, 下村玄壽의 서문, 伊藤素安의 서문, 藤原韶先의 서문이 있다⁹¹⁾. 二十三卷의 卷尾에는 ‘元祿丁丑孟夏吉日’이라는 글이 있으며⁹²⁾, 그 뒤에 元祿 丙子년에 씌여진 저자의 아들인 名古屋玄篤의 後序와⁹³⁾ 天明 八年 戊戌에 씌여진 大板書林崇高堂의 刊記가 있다⁹⁴⁾.

저자인 名古屋玄醫(1682-1696)는 日本 古方派의 한 사람으로 字가 富潤, 閔甫이고 號는 丹水子, 宜春庵이며 교토(京都) 출신이다. 後世 方派인 曲直瀬道三의 학파에서 의술을 배웠으나, 40세를 전후하여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學派를 세웠다⁹⁵⁾. 그는 張景岳의 『類經』과 『薛氏醫案』, 『古今醫統大全』 등을 간행하였으며, 趙獻可의 『醫貫』, 孫一奎의 『赤水玄珠』, 張三錫의 『醫學六要』 등을 일본에 소개하는 등 溫補學派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⁹⁶⁾. 그러나 溫補學說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抑陰助陽’⁹⁷⁾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여 醫學의 원리로 삼았다⁹⁸⁾. 그의 저작으로는 1668년에 완성된 『纂言方考』와 1679년의 『醫方問餘』, 만년에 완

성된 『醫方規矩』와 『金匱要略註解』가 있다. 『纂言方考』에서는 『傷寒論』이나 『金匱要略』에 대한 언급이 없이 주로 溫補學說을 소개하고 있으나 『醫方問餘』부터는 仲景方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학술성향의 변화를 잘 살펴볼 수 있다⁹⁹⁾.

本文의 구성은 金匱의 原文 아래에 韓단을 내려서 名古屋玄醫의 註解가 있고 종종 小字로 된 注가 있는데 이것은 門人 武下玄龜의 重訂으로 생각된다. 또한 註解의 내용에 있어서 成無已와 朱肱, 王宇泰, 劉純, 喻昌 등을 인용하고 있는데¹⁰⁰⁾, 특히 喻昌은 후대의 金匱 注釋家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清初의 학자로 名古屋玄醫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다. 이 외에도 清代의 吳崑¹⁰¹⁾과 徐忠可¹⁰²⁾ 등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中國의 醫書들이 비교적 빨리 日本이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金匱要略方論襯注』

劉棟田良이 1773년에 저술한 3권의 醫書로서 현재 文化 4년(1807년)에 一方堂에서 重刻한 판본이 中國醫學科學院과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나¹⁰³⁾ 입수하지는 못하였다. 山田正珍

89) 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卷一·十五～二十一。(中醫研究院에 소장된 마이크로필름본을 複寫하여 입수하였다.)

90) 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卷二·一～二.

91) 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卷一·一～十四.

92) 丙子년의 다음이 丁丑년이므로 실제로 책을 출판한 연도는 丁丑년이 아닐까 생각된다.(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卷二十三·八)

93) 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跋·一～二.

94) 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跋·二.

95) 蕃桂娟 外：日本漢方醫學，p.47

96) 蕃桂娟 外：日本漢方醫學，p.48, 83

97) 이 抑陰助陽의 학설은 石谷의 扶陽抑陰의 扶陽論과 유사하며, 景岳의 扶陽助陰 학설의 영향을 받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98) 蕃桂娟 外：日本漢方醫學，p.48

99) 蕃桂娟 外：日本漢方醫學，p.48

100) 예를들어 成無已는 卷二·一에 “成無已註解傷寒論引經曰……”으로 인용하였으며, 이후에도 ‘成氏曰’이라하여 인용하고 있다.

101) 吳崑曰：風濕相搏，故骨節疼煩，……(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卷二·二十一.)

102) 徐氏云：此條無治法，東垣以清暑益氣湯主之。……(名古屋玄醫：金匱要略註解，卷二·二十三.)

103) 段光周：상계서，p.420

의 『金匱要略集成』에서 몇 조문을 인용하고 있다.¹⁰⁴⁾

3) 『長沙正經證匯』

田中榮信이 저술한 서적으로 현재 成都中醫學院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¹⁰⁵⁾ 寬政 2년(1733년)에 吉益猷修의 서문과 著者의 서문, 寬政 3년에 제자인 奧田元繼의 서문, 저자의 아들인 田中榮恒의 凡例가 권두에 있다.¹⁰⁶⁾ 이 책은 『金匱要略』의 註釋書로 보기는 어렵고,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條文을 질병문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기 쉽게 한 것이다.¹⁰⁷⁾ 또한 『傷寒論』과 『金匱要略』 중에서 處方이 없는 조문이나 조문이 없는 處方 및 의심이 되는 조문 등은 모두 수록하지 않았으며¹⁰⁸⁾, 條文을 『嘔吐門』에서 『雜門』까지 모두 38문으로 분류하였고 그 뒤에 229개의 처방을 『長沙正經證匯諸方』이라하여 수록하였다.¹⁰⁹⁾ 맨 뒤에는 天明 3년(1783년) 松下正의 跋文과 저자의 門人인 奧田元純의 後序가 있다.¹¹⁰⁾

내용을 살펴보면 原文에 대한 특별한 註釋이나 發揮는 없고 단지 “右十二法, 嘔吐不得食或發熱證.”과 같이 조문을 분류하기 위한 표제에 해당하는 문장만이 사이사이에 추가되어 있

다.¹¹¹⁾ 또한 張仲景을 仲景氏, 長沙氏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¹¹²⁾ 柴胡를 모두 茈胡로 표기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傷寒論』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임상적 실용성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일종의 異本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에는 紹興의 裘慶元(1873-1948)의 간행에 의해 소개되었으며,¹¹³⁾ 현재 1998년 중국에서 새롭게 재편집한 『三三醫書』의 제2집에 수록되어 있다.¹¹⁴⁾

4) 『金匱要略集成』

1789년에 山田正珍이 저술한 3권의 醫書로서 현재 文久 元年(1861년)에 平安廣濟堂의 抄本이 中醫研究院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¹¹⁵⁾ 著者인 山田正珍(?-1787)은 에도(江湖) 시대의 의학자로 의학적인 성향은 丹波元簡과 함께 折衷派에 속하며¹¹⁶⁾, 저서로는 『傷寒論集成』 10권과 『金匱檢證』 2권, 『金匱要略集成』 1책, 『金匱類纂』 1책이 있다.¹¹⁷⁾ 中醫研究院圖書館에 소장된 筆寫本의 권말에는 “于岩文久紀元申西孟冬於平安廣濟堂 寫之。 / 醉仙生口生 授之”라는 말과 함께 “大河野濱藏書”라는 印章이 찍혀 있다¹¹⁸⁾. 모두 上中下 3卷으로 되어 있으며, 序文이나 跋文은 없으나 각권의 머리에 “東武 山田正珍宗俊 著¹¹⁹⁾”

104) 山田正珍：金匱要略集成，中醫研究院所藏本 筆寫抄本，pp.1,12,13 등.

105) 段光周：상계서，p.420

106) 田中榮信：長沙正經證匯，in 三三醫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8. p.636-639

107) 此編據長沙氏正經，隱括諸章，去煩歸簡，欲易見也。(田中榮信：상계서，凡例，p.639)

108) 田中榮信：상계서，凡例，p.639

109) 田中榮信：상계서，p.641-646

110) 田中榮信：상계서，p.682-683

111) 田中榮信：상계서，p.647

112) 田中榮信과 그 제자 奧田元繼는 서문에서 仲景氏라는 호칭을 아들인 田中榮恒은 長沙氏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113) 田中榮信：상계서，p.647

114) 裘慶元：三三醫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8.

115) 段光周：상계서，pp.420-421

中醫研究院 측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複寫本은 못 구하였고 筆寫로 된 抄本을 입수하였다.

116) 蕃桂娟 外：日本漢方醫學，p.68

117) 蕃桂娟 外：日本漢方醫學，pp.166-168

118) 山田正珍：金匱要略集成，中醫研究院圖書館 所藏本 筆寫抄本，p.51

119) 東武는 號，宗俊은 字로 생각된다。(山田正珍：상계서，pp.1,28,47)

라고 되어 있어서 저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臟腑經絡先後病」편은 없고 「痙濕喝」에서 「雜療方」까지의 篇에 金匱 原文 아래에 “正珍曰 : ……”이라하여 注釋을 가하고 있으며, 金匱 전체에 대한 주석이라기 보다는 일부 條文에 대한 선별적인 註解를 가하고 있다. 『千金方』, 『外臺秘要』 등을 인용한 校勘과 함께 『金匱要略癩注』, 『金匱要略釋義』, 『醫宗金鑑』 등의 注釋을 인용한 부분도 있다.

5) 『金匱要略輯義』

이 책은 1806년 丹波元簡이 저술한 6권의 醫書로 5종의 판본이 있으며¹²⁰⁾, 宋本과 徐熔本, 劉橋本, 趙開美本 등 4종의 판본을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徐彬의 『論注』, 程林의 『直解』, 沈明宗의 『編注』, 魏荔彤의 『本義』, 尤怡의 『心典』, 吳謙의 『金鑑』 등의 注釋本과 『千金方』, 『外臺秘要』, 『諸病源候論』, 『肘後方』 등 역대 醫書를 두루 참고하여 『金匱要略』의 研究에 있어서 매우 가치가 큰 책이다.¹²¹⁾ 大塚敬節은 日本人의 學說은 전혀 채용하기 않고, 독단적인 學說이 적고 온건하다고 평가하였다.¹²²⁾ 著者인 丹波元簡(1755~1810)은 아들인 丹波元胤, 丹波元堅과 더불어 일본 漢方醫學의 大家로 알려져 있으며, 三父子의 醫書가 모두 20여종에 이르며 현재 “律修堂醫書選”이란 이름으로 三父子의 책이 출간되어 있다. 丹波元簡의 대표적인 醫書로는 이

책 이외에도 『傷寒論輯義』, 『雜病廣要』, 『傷寒廣要』, 『脈學輯要』 등이 있다.¹²³⁾

6) 『金匱玉函要略述義』

1842년 丹波元堅이 저술한 3권의 주석서로서 현재 3종의 판본이 있다.¹²⁴⁾ 丹波元簡의 다섯째 아들로써¹²⁵⁾ 책의 편제는 『金匱要略輯義』와 거의 유사하며 『輯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서술하였다.¹²⁶⁾ 또한 그는 『傷寒論述義』를 저술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부친인 丹波元簡의 『傷寒論輯義』를 보충한 것이다.¹²⁷⁾

이외에도 日本에서 나온 『金匱要略』 註解書로는 喜多樹直寬의 『金匱玉函要略方論疏義』, 雲林院了作의 『金匱要略國字解』, 五牛道人(後藤慕庵か)의 『金匱要略析義』, 淺田宗伯의 『雜病論識』 등이 유명하며,¹²⁸⁾ 현대의 대표적인 註解書로는 1979년 大塚敬節이 저술한 『金匱要略講話』가 있다.¹²⁹⁾ 또한 蕃桂娟 등에 의하면 에도(江湖)시대에만 모두 67종의 『金匱要略』 관련 서적이 있을 정도로¹³⁰⁾ 日本의 金匱 研究는 활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 韓國의 『金匱要略』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 『金匱要略』이 최초로 수입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三國時代에는 중국과의 醫學交流가 활발하였으며¹³¹⁾ 『醫心方』에 인용된

120) 鈴木達也 譯：金匱要略，東京，中國漢方，昭和57年，p.468.

121) 段光周：상계서，p.421

122) 大塚敬節：金匱要略講話，大阪，創元社，p.8

123) 丹波元簡 等：傷寒論輯義·傷寒論述義·金匱玉函要略輯義·金匱玉函要略述義(律修堂醫書)，出版說明，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124) 段光周：상계서，p.421

125) 蕃桂娟 外：日本漢方醫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p.161，1994.

126) 大塚敬節：상계서，p.8

127) 丹波元簡 等：傷寒論輯義·傷寒論述義·金匱玉函要略輯義·金匱玉函要略述義(律修堂醫書)，北京，人民衛生出版社，p.1，1983.

128) 大塚敬節：상계서，pp.8-9

129) 段光周：상계서，p.422

130) 蕃桂娟：상계서，pp.168-169

131) 김두중：韓國의 학사，서울，탐구당，pp.29-31，1966.

『百濟新集方』의 佚文에 “治肺癰¹³²⁾方”이 있는 것으로 보아¹³³⁾ 三國時代 이전에 이미 『金匱』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高麗時代에는 宣宗 10년에 宋에서 高麗에 요청한 醫書 가운데 『張仲景方』 15권이 있으며¹³⁴⁾, 文宗 12년에 忠州牧이 진상한 書籍 가운데 『傷寒論』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金匱要略』이 高麗時代 以前에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金匱要略』이라는 서명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朝鮮時代에 이르러서이다. 조선 世宗 때 지어진 『鄉藥集成方』에는 『張仲景(方)』¹³⁵⁾, 『傷寒論』¹³⁶⁾, 『金匱玉函』¹³⁷⁾ 및 『金匱方』¹³⁸⁾이라는 이름으로 張仲景의 處方이 인용되어 있으며, 『醫方類聚』에는 引用書目에 『傷寒論』, 『傷寒論注解』 등 傷寒 관련 서적과 함께 『金匱方』이 수록되어 있다.¹³⁹⁾ 특히 『醫方類聚』는 27卷-63卷에서 『傷寒論』 및 『註解傷寒論』의 全文을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¹⁴⁰⁾, 기타의 各門에서 『金匱要略』의 거의 전 條文을 인용하고 있다.¹⁴¹⁾ 따라서 적어도 朝鮮初期 以前에는 『金匱要略』의 완전한 版本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醫方類聚』에 散載된 『金匱要略』의 條文들은 비교적 오래된 古本の 일종으로 學術的 價値가 뛰

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金匱要略』은 그외에도 『東醫寶鑑』과¹⁴²⁾ 기타 醫書에 일부 引用되고 있으나 『醫方類聚』 이외에는 全文을 모두 인용한 서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版本으로 出刊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金匱秘方』이란 서적에 “金匱”란 명칭이 들어가 있었으나 내용은 四象醫學 계통의 處方集으로 『金匱要略』과는 큰 상관성이 없었다.¹⁴³⁾

1) 『金匱要略精解』

1974년 一默 蔡仁植이 저술하여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에서 출간한 책으로¹⁴⁴⁾, 編次와 注釋에 있어서 『醫宗金鑑』을 위주로 하고 諸家의 注釋중 間斷明瞭한 것을 인용하고 간혹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¹⁴⁵⁾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金匱要略』 전문서적이라는 의의가 있다.

2) 『完譯金匱要略』 및 『國譯金匱要略』

이 두 책은 著者と 書名은 비록 다르지만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書籍이다. 『完譯金匱要略』은 1978년 朴憲在의 譯註로 書苑堂에서 간행한 것이며¹⁴⁶⁾, 『國譯金匱要略』은 李東健에 編著로 1996년에 書苑堂에서 간행한

132) 肺癰이란 病名은 『金匱要略』에 최초로 나온다.

133) 김두중 : 상계서, p.48

134) 김두중 : 상계서, p.118

135) 盧重禮 外 : 鄉藥集成方(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p.75,140,257,416

136) 盧重禮 : 상계서, pp.84,118,120,123,139

137) 盧重禮 : 상계서, p.419

138) 盧重禮 : 상계서, pp.155,301,369,401,425

139) 김신근 :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94, 1987.

140) 金禮蒙 外 : 醫方類聚, 평양, 북한의학출판사, 1991

141) 金禮蒙 外 : 醫方類聚, 평양, 북한의학출판사, 1991

142) 『金匱要略』이나 『金匱方』 등의 書名은 보이지 않으며, 『傷寒論』의 異傳本人 『金匱玉函經』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金匱要略』의 조문들이 『東醫寶鑑』 속에 散見되므로 『金匱要略』과 『金匱玉函經』을 혼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신근 : 상계서, p.193 ;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69)

143) 李濟馬 : (東武遺稿)四象金匱秘方, 서울, 杏林書院, 1975.

144) 蔡仁植 : 金匱要略精解, 대구,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4.

1985년 한림원이란 출판사에서 重版하였다.

145) 蔡仁植 : 상계서, p.6

146) 朴憲在 : 完譯金匱要略, 부천, 書苑堂, 1986. (1978년 初版)

것이다.¹⁴⁷⁾ 두 책은 中國의 人民衛生出版社에서 1974년에 刊行한 『金匱要略語釋』의 修訂版을 翻譯한 것으로¹⁴⁸⁾ 卷頭의 概要와 함께 各篇마다 原文, 註¹⁴⁹⁾, 解釋, 參考의 순서로 構成되어 있다.

3) 國譯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彤의 「金匱要略方論本義」의 國譯本으로,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卒業準備委員會에서 2000년에 翻譯 出刊하였다.¹⁵⁰⁾ 翻譯에 사용된 臺本은 人民衛生出版社에서 1997년에 出刊한 中醫古籍整理叢書本이며, 최초의 完전한 『金匱』 注釋本の 翻譯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金匱要略』의 重要 注釋書에 대한 文獻의 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金匱要略』에 대한 최초의 注釋은 趙良仁의 『金匱要略衍義』이며, 그 이후 中國에서는 『金匱玉函經二註』, 『金匱要略論注』, 『金匱要略直解』, 『金匱要略方論本義』, 『金匱要略心典』, 『訂正金匱要略注』 등이 유명하다.
2. 日本에서는 『金匱要略注解』을 효시로 『金匱要略方論補注』, 『長沙正經證滙』, 『金匱要略集成』, 『金匱要略輯義』, 『金匱玉函要略述義』 등의 注本이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金匱要略』이 수입되었으며 『東醫寶鑑』을 비롯한 많은 의서에서 『金匱要略』을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金匱要略』에 관련된 서적이 3권에 불과하며 金匱에 대한 研究가 부족한 실정이다.

Ⅳ. 參考文獻

1. 裘慶元 : 三三醫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 구자권 : 『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篇의 治方에 대한 文獻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는 문집14 : 337-360, 1999.
3. 구자권 : 『金匱要略·瘡癰腸澼浸淫病脈證』篇의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5 : 147-162, 1999.
4. 김두중 :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5. 金禮蒙 外 : 醫方類聚, 평양, 북한의학출판사, 1991.
6. 김신근 :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7. 김용태, 김성훈 : 『金匱要略·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篇에 對한 研究,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 13 : 445-463, 1998.
8. 김인락 : 『金匱要略』 溫經湯 표준화, 한국본초의학연구회지 2(2) : 120-126, 1999.
9. 盧重禮 外 : 鄉藥集成方(上), 서울, 대성문화사, 1992.
10. 段光周 外編 : 金匱要略手冊, 仲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8.
11. 丹波元簡 等 : 傷寒論輯義·傷寒論述義·金匱玉函要略輯義·金匱玉函要略述義(律修堂醫書), 出版說明,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2. 唐容川 : 金匱要略淺注補正, in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 大塚敬節 : 金匱要略講話, 大阪, 創元社, 1979
14. 馬鶴興 :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5. 名古屋玄醫 : 金匱要略註解, 北京, 中醫研究院圖書館 所藏本.
16. 박상채 : 『金匱要略』 중 桔梗이 使用된 處方

147) 李東健 : 國譯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66.

148) 李東健 : 상계서, p.5

149) 『完譯金匱要略』에서는 註라는 標記가 없이 두 단을 내려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朴憲在 : 상계서, pp.57-58)

150) 魏荔彤 撰, 東國大學校韓醫科大學第15期卒業準備委 譯 : 金匱要略方論本義, 서울, 남형문화(自家出版), 2000.

- 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 논문집15 : 163-176, 1999.
17. 朴憲在 : 完譯金匱要略, 부친, 書苑堂, 1986. (1978년 初版)
 18. 蕃桂娟 外 :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9. 山田正珍 : 金匱要略集成, 中醫研究院所藏本筆寫抄本.
 20. 徐忠可 : 金匱要略論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21. 신원용 : 『金匱要略·消渴小便利淋病脈證并治』의 病因과 病理에 對한 小考,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4 : 305-325, 1999.
 22. 沈目南 : 沈注金匱要略, 中國醫學大成(第2冊)傷寒·金匱分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p.701, 1997.
 23. 鈴木達也 譯 : 金匱要略, 東京, 中國漢方, 昭和57年.
 24. 吳謙 : 訂正仲景全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25. 尤怡 :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6. 尤怡 : 金匱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7. 魏荔彤 :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8. 魏荔彤 撰, 東國大學校韓醫科大學第15期卒業委 譯 : 金匱要略方論本義, 서울, 남형문화 (自家出版), 2000.
 29. 李東健 : 國譯金匱要略, 서울, 書苑堂, 1966.
 30. 이동훈, 김성훈 : 『金匱要略·胸痺心痛短氣脈證并治』篇에 對한 研究,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3 : 517-532, 1998.
 31. 李炆 :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32. 李濟馬 : (東武遺稿)四象金匱秘方, 서울, 杏林書院, 1975.
 33. 이호재, 김성훈 : 『金匱要略·婦人妊娠病脈證治』篇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한의학연구소논문집13 : 543-560, 1998.
 34. 林培政, 劉竝敏 : 關於中醫臨床基礎學科發展的思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5(8) : 16-17, 1999.
 35. 田中榮信 : 長沙正經證滙, in 三三醫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36. 程林 : 金匱要略直解, 上海, 中醫書局, 中華民國19年.
 37. 趙以德·周揚俊 : 金匱玉函經二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8. 陳修園 : 金匱要略淺注,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8.
 39. 蔡仁植 : 金匱要略精解, 대구, 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4.
 40. 何任 主編 :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4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동양의학연구소, 1982.
 42.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43. 湖北中醫學院 編 : 金匱要略講義, 香港, 醫藥衛生出版社, 1977.
 44. 홍문엽 外 : 『金匱要略』의 常見腹證에 관한 研究, 동국대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8(1) : 51-76, 1999.
 45. 黃元御 : 金匱懸解, in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 Abstract =

A Literary Study on the *Jinguiyaolue*(金匱要略)

Yong-Ha Lyeom · Ki-Tae Ha · Dong-Hwan Hyun · Sang-Ju Yoon · June-Ki Kim, Dall-Yeong Choi*

Department of Pathology,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Jinguiyaolue(金匱要略), written by Zhong-Jing Zhang(張仲景) in late Han(漢) Dynasty, is very fundamental Cannon of Oriental Medicine. Many Doctors commented on the book from Yuan(元) Dynasty in Chian and from Edo(江戸) Period in Japan, but there are a few studies in Korea. So we studied on the commentaries of the book, which published in the three countries, for improving research and education of it in our country.

Key words : *Jinguiyaolue*(金匱要略), Commentaries

* : To whom all correspond should be addressed.

Dep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707 Sukjang dong, Kyoung-Ju City, Kyoung-Buk, Korea. (zip : 780-714)

Tel : 054-770-2650 Email : cdydkom@dongguk.ac.kr